

전자제조업체 S사

SRM 및 구매포탈 시스템 구축

CUSTOMER CASE STUDY

업종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산업장비 제조

임직원 수 약 760명

매출액 약 9,712억 원(2024년 기준)

■ 2020.11 ~ 2021.05 / 2023.09 ~ 2023.12

Customer Comments

엠로 솔루션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내/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구매 업무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조업체 S사 구매 담당자

Project Overview

Challenges

내/외부 구매 환경 변화에 따른 그룹사 전반의 시스템 기반 대응 능력 필요

사업 확대에 따른 구매 품목 및 협력사 관리 복잡성 증가

하도급법 개정, 온라인 업무 증가 등 구매 환경 변화 대응 필요

기능별 분산된 시스템 및 계열사 별 상이한 구매 운영 방식

Solutions

공정거래 관리 및 협력사 가시성을 강화한 구매 통합 시스템 그룹사 확산

구매 전 프로세스 온라인화 및 시스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한 납품대금 연동 안내, 후속 관리 프로세스 구현

협력사 공급 품목 또는 거래 실적의 가시성 강화

Results

구매 효율성 제고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구매요청-발주 발행까지의 리드타임 단축

최소한의 구매 담당 인력으로 구매 및 협력사 관리 효율성 강화

협력사 선정 투명성 확보, 납품대금 연동 적용 등 공정거래 리스크 최소화

[구매요청](#)[전자입찰](#)[발주관리](#)[검수/입고](#)[협력사 등록/관리](#)[협력사 평가](#)[전자계약](#)[구매 실적 관리](#)[시스템 공통](#)

Challenges

내/외부 구매 환경 변화에 따른 그룹사 전반의 시스템 기반 대응 능력 필요

스마트팩토리 및 반도체 산업 장비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자제조업체 S사는 2014년 구축한 구매 솔루션을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품목 및 협력사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데 반해, 모회사와 계열사가 각각 별도의 구매시스템을 운영해 그룹사 전반의 구매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2020년 모회사의 구매시스템을 각 계열사에 확산해 단일 시스템 기반으로 그룹 전체의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2023년에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Edge, Chrome, Internet Explorer 11, Whale 등)를 사용하는 온라인 계약 환경을 지원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관련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추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

Our Solution

공정거래 관리 및 협력사 가시성을 강화한 구매 통합 시스템 그룹사 확산

S사는 2020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구매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그룹사 차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구매 환경을 위한 최적의 업무 기반을 구현하고, 다양한 협력사 관리 기능을 추가해 협력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엠로는 S사와 계열사의 구매 프로세스 전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단일 시스템 상에서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던 전자계약 업무를 구매시스템에 내재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 문서 생성을 위한 편집 기능 등을 도입해 온라인 계약 업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구매시스템을 통해 견적 의뢰 단계에서 자동으로 협력사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안내하고, 연동 의사 확인 등 후속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현했다. 이외에도 분산되어 관리하던 공급가 실적분석, 거래 협력사 정보 등 구매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구매시스템 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Results

구매 효율성 제고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엠로와 함께 새롭게 구축한 구매시스템을 통해 S사 및 계열사는 구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매요청 접수부터 PO 발행, 계약 체결에 이르는 구매 프로세스 전반을 온라인 기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리드타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협력사 정보 등록 및 협업 관리를 통해 소수의 구매 담당자로도 수많은 협력사의 공급 품목 및 거래 이력, 실적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구매시스템 상에서 구매 유형에 가장 적합한 입찰 방식을 활용해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무도 시스템을 통해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